

△長津江水力發電所

그리운 長津江아!

잃어버린

내 電氣王國이여!

〈 3 〉

金 野 麟

▨ 5·14 断電 쇼크

평양에서 처음으로 미·소 전력회담이 열린 것이 1947년 6월이었다. 8·15 직전 장진강 제 2 발전소로부터 평양을 거쳐 서울 방면(水色)에 10만kW를 송전하고 있었다. 그때 ‘전력회담’에서는 겨우 5만kW의 대남 송전으로 생색을 내는 척 하면서 소련군은 북조선의 수력전기를 마치 저들의 전리품(戰利品) 인양 간주하면서 공연한 트집으로 무언가 흉계를 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풍겼다.

북조선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기자단과의 회견(1948. 4. 29)에서 “전력문제에 대한 조절(調節)이 없으면 남조선에 대한 전력공급을 단절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은 그 당시의 사연(상황)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 제 1차 미·소 공동위원회(1946. 3. 20~5. 9 서울 덕수궁)는 소련 측 대표 스티프크의 생트집으로 결렬되었다. 그

위에 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1947. 5. 21~7. 10) 역시 똑같은 수법으로 완전히 판이 깨지고 말았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과의 협상을 단념하고 U·N 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를 가결(1947. 9. 23) 했는데, 그 UN 결의에 따라서 ‘UN 한국위원단’이 내한(1948. 1. 8)했었다. 그러나 소련측은 ‘UN 한국위원단’의 북조선 입북을 완강히 거부했던 것이다. 하는 수 없이 UN 총회는 한국문제 토의를 거듭한 끝에 「가능한 지역에서의 자유선거 실시(1948. 2. 26)를 가결했다. 이처럼 감시단 밑에서 남조선 자유선거 날짜가 다가오고 있을 무렵에 김일성의 기자회견이 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남조선 인민들은 총선거를 보이콧하라는 협박이었다. 사실 그 당시 북한의 모든 기관은 모택선전과 악랄한 수단을 다해서 남한의 총선거 방해 공작에 혈안이 되어 구성을 떨고 있었다.

그같은 와중에서 역사적인 총선거(制憲국회의원·1948. 5. 10)가 막을 내렸다. 북한의 끄

나뭇잎에 의한 살인, ‘뺨화, 폭동, 파괴, 태업 등 온갖 테러 활동도 무색하게 투표율은 93%를 기록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엉뚱한 트집과 구실을 늘어놓다 못해 급기야는 대남 송전을 단절(1948. 5. 14 낮 12시)하고야 말았다. 저들은 ‘전기’를 한낱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이용 「5·10 선거」 뒷새만에 단전(斷電)을 했던 것이다.

그당시 남조선에서는 수력발전량이 겨우 34,500kW, 화력발전량이 21,000kW 모두 합쳐 봐야 55,500kW밖에 안됐었다. 절대수요량(여름철)이 102,000kWh, 더구나 겨울철 전기 소비량은 16만~22만kW로 추산됐었다.

갑작스러운 송전중단에 당황한 것은 당국뿐만이 아니었다. 새로 만들어진 「비상전력대책위원회」는 부랴부랴 배전 3부제(配電三部制·동력, 전동, 비상선)를 강력히 실시했는데 도시에서는 이를 건너, 농촌에서는 열흘에 한번 꼴로 전기 불을 켤 수 있었다. 한때 서울에서는 전차까지 총 스톱이 됐었다.

새나라 산업재전은 커녕 연료(석탄) 공급마저 끊겨, 생산활동은 붕괴 직전에 놓였다. 전기(석탄) 부족으로 여기 저기서 아우성이었는데 탄광 막장에는 물이 괴어 내를 이루었고, 한창 농사철에 양수기를 돌릴 수가 없어서 관개(灌溉) 수로는 마르고 논바닥은 갈라지고 있었다.

경인 공업지대(서울·인천)의 각 공장 등의 가동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여러가지 공산품의 생산량이 종전의 겨우 5%라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 무렵, 북한에서는 수풍,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강계 등, 여러 수력발전소에서 4년 동안에 걸쳐, 꾸준히 복구작업을 계속하고 또 출력증강에 힘쓴 끝에 적어도 120만kW의 전력을 거뜬히 생산하고 있었다. 남한에 대해서는 5만kW의 송전조차 끊어가며 그토록 인색했던 평양이 저들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더없이 후한 인심을 베풀었다. 곧, 수풍발전소는 남만주(鞍山 등지)에, 그리고 허천강 발전소는 간도(間島·延吉電業관내)에 송전했고, 심지어 赤池 변전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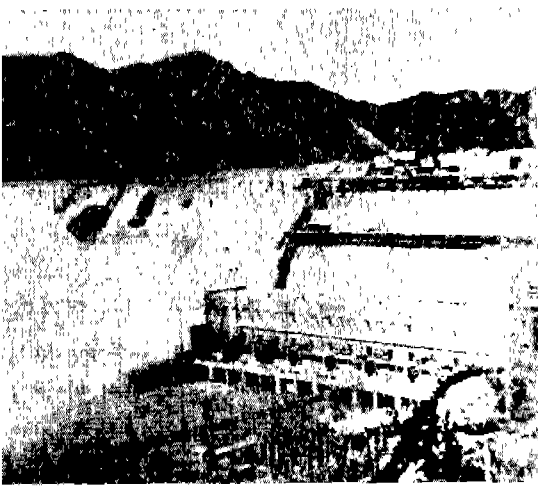
통해서 두만강 하류(함북 경흥군 노서면 龍峴洞)에서 강을 질러 소련땅(쁘세트 지구)에 까지 송전하고 있었다. 그리고도 오히려 20만kW 정도의 전력이 남아 도는 형편이었다고 들었다. 한겨레인 남한 백성들이 단 5만kW의 전력에 목말라 있던 때에, 그같은 대외국 송전은 너무 부도덕한 선심이 아닐 수가 없었다.

저쪽(북한)의 말인즉, 제약상의 전력 대가(電力代價)를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면 그것을 단전의 구실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그 당시 미군정청에서는 이미 소련군 당국에 35%의 물자(전력 대상물자)를 보냈고, 이어 40%의 물자를 인수(특히 거둬) 촉구했으며 나머지 25%의 물자는 항구(미국)를 떠나 부산항에 수송중에 있었다. 미군정이 전력 대가로 소련군측에 인도한 물자(제1차분)만해도 사실은 그당시(1947. 6) 시가로 자그마치 10억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거액이었다.

李聖鍾씨는 40년전의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생생히 증언했다. “남한에서 그같은 물자를 보내온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런데 해피한 것은 소련군 당국이 자동차 타이어(일제 요꼬하마 단 룯쁘) 500개 정도, 전구(電球) 몇 만개, 전선 10t 가량, 그리고 휘발유 300드럼 등, 얼마 가량의 물자를 그나마 생색으로 북조선인민위원회에 나눠주고는 나머지는 몽땅 소련으로 실어 갔고 실제 전력 대가 물자 가운데서 소련군측으로

▼ 북한(소련군) 측이 인수한
電力代價物資(제1차분)

마닐라로프	1,500kg	鑛山드랍	80대
주석(錫)	500t	電話機	1,000대
튜브	5,200개	못(針)	70t
판유리	10,000장	電動機(모터)	350대
휘발유	1,500드럼	電線	200t
機關車注水機	17대	自動車	4,000대
變壓器	600대	電球	3,000,000개
윤활유	3,300드럼	縫絲	1,000,000추
리어카	500대	生 고무	370t
타이어	5,200개	安全機	2,500대



△鴨綠江 水豐 댐

부터 인민위원회는 전체의 5%도 받았을까 말까였다”고 한다.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이 수립(1948. 8. 15)되어 정부에서 산업재건을 부르짖었지만 전력이 없으니 무엇하나 될 까닭이 없었다. 단전 후 그해 겨울에 서울에서는 집집마다 촛불을 켜고 지냈다.

이처럼 전력기근으로 남한 전체가 허덕이고 있었는데, 거기 또 얹힌 데 덮친 격으로 저 6·25 남침이 있었다. 남한의 전기사정은 중대 위기에 봉착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록적인 최악의 위기는 1·4 후퇴(1951. 1) 당시였다.

그때, 남한의 가능 발전력은 부산(화력) 2천 kW, 자코나(발전함) 1만 4천 kW, 모두 합쳐 봐야 겨우 1만 6천 kW 뿐이었다.

오늘날 남한의 총발전량이 거의 2천만 kW에 이르고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없지 않다.

다음은 全應淵선생이 몸소 겪은 체험담의 한 토막이다. 허천강(제 2 발전소)에서 간도(間島) 방면에 계속 송전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통전기요금을 청산해 주질 않았다. 그래서 함흥을 떠나 장장 천리길 회령에 들러 張弘南씨(영업소장)를 앞세워, 두만강을 건너 연길(延吉電業)로

갔다. 그런데 “전기요금(6개월분)을 내라”니까 “돈이 없어 지금은 못 내겠다”며 태연히, 그리고 아주 뱃심 좋게 거절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전기를 끊겠다” 했더니 벌떡 화를 내며 “왕바당차우니”하고 욕지거리였다. 며칠을 두고 교섭 끝에 겨우 황조(좁쌀) 8t (트럭 3대분)을 싣고 돌아 온 일이 있었다고 한다(1946. 11. 초).

그들(중국인)과 만나 회담을 빨리 해 보자고 조르면 첫마디가 언제나 ‘만만디’(漫漫的)다. 천천히 하자는 것이다. 쾌이쾌이다(快快的·빨리)로 하자면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다.

민주에서 싣고 온 그 좁쌀이 꽤 많은 몫을 했다.

사실 청진지점 종업원들은 해방되던 해 7월분 급료를 타고는 그후 5~6개월 동안 무보수로 일해 왔었다. 바다에서 건너온 콩(폭격으로 상선 침몰)을 말려서 가끔씩 배급했는데 모두들 근근히 연명해 왔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갔다.

그러다가 이듬해(1946) 2월에 가서야 비로소 해방후 첫 월급을 타게 되었다.

● 끌어 앓힌 日本人 電氣技術者들

8·15 북새판에 헝클어진 전기부문의 복구사업에 있어서, 더구나 수력전기의 복구 사업이나 출력 증강을 위해서는 발전관계에 익숙하고 노련한 기술자가 많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맥아더 사령부(도쿄)와 모스크바(소련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일본인 제 1차 귀환선(榮豐丸)이 원산항에 들어왔다(1946. 12. 18).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이 배를 농칠세라 그 일본인 기술자들이 여러 발전소에서 우르르 몰려 갔다. 평양(전기처)에서도 당황해서 뒤쫓아 사람을 보내(辺應浩 총무부장 一行) 원산 어느 여관에서 일본인 전기기술자들을 한데 모아 놓고, 북한에 한동안 머물러 줄 것을 거듭 간청했으나 그들은 콧등으로도 듣지않고 막무가내로 떠난다고

버티었다. 며칠을 두고 반은 설득으로, 반은 협박(?) 끝에 겨우 끌고 돌아왔다. 도로 끌려 온 전기기술자는 수송발전소의 각 부문별 기술자 36명을 포함해서 모두 50명 가량이었다.

그후, 어떤 기술자는 발전소에 도로 붙잡혀 온 것에 불만을 품고 복구사업이나 기술 전수는 커녕 날이면 날마다 출담배만 피우며 낮잠 자는 것이 일과였다고 한다. 책상 위에 두다리를 하늘로 쭉 뻗고 의자에 벌렁 자빠져 '날 잡아 먹소' 식의 배짱 놀음이었다. 말하자면 고의적인 사보타지인 것이다.

“일본인 피난민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옳지 않은가”며 밤낮 투덜대는 사람도 있었다.

피난민 말이났으니 말이지, 함북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은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다. 도 방위 본부의 지시(제98호 계획)에 따라 함북에 거주하는 모든 일본인은 먼저 會寧이나 茂山에 집결한 뒤 여기서 惠山鎭(함남)을 거쳐 압록강 기슭을 따라 남하, 다시 成川(평남)으로 최종 집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야만 관동군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일본인 피난민들은 곧이 곧대로 무산에서 헤산진으로... 그렇게 길을 서둘렀다. 함경남·북, 중부 이북에는 오죽이나 높은 산들이 많은가. 산속을 헤매던 저들이 관동군 패망의 소식을 들었다. 험한 산등성이와 울창한 밀림속, 그리고 으스스한 칠푼 산중에서 낙오자가 속출했다. 발바닥엔 물집 투성이, 더구나 여인들은 녹초가 돼서 쓰러져 갔다.

난시에 앓은뱅이가 없다지만, 그 즈음 산골짜기에는 앓은뱅이 천지였다. 그런데 그때 마침내 마침내 중국 젊은이가 나타나 쓰러져 있는 처녀와 부녀자 앞에 다가서며

“옥쌍(사모님), 업어하자. 이 사람, 옥쌍 업어하자”했다. 불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는 격으로, 여인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내밀어 그 젊은이 등에 업혔다. 그 사나이는 남쪽 아닌 북으로 달려 내쳐 압록강을 건너 엉덩춤으로 만주 땅에 들어섰다. 이리하여 한 사나이는 벼락장가

를 들었다. 그 이튿날, 중국 홀아비 전달패들이 옥시굴 볼며와 산비탈에서 무릎 걸음마하는 일본 여인들을 주섬주섬 등에 업고는 궁둥이에서 비파소리를 내면서 압록강을 건너 북으로 달려 갔다고 한다.

그같은 일본 피난민 여인들은 어디선가 소련군이 밀어. 닥친다는 소문에 그만 겁에 질려서 허둥대던 끝에 병든 남편을 풀 쇠에 눌려둔채도 망친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짓적이 애기를 산속에 버리고 달아난 중년 부인도 있었다고 한다.

본래가 일본 여인들은 남편이나 제 자식까지도 버리는 그런 매정하고 매물찬 데가 있기도 하다.

다음 글은 李泰俊 선생의 회고담이다. 그전에 후지와라(藤原てい)가 쓴 '流れる星は生きている'(흐르는 별은 살아 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소련군이 냅다 만주로 쳐들어 오자 술한 일본인들이 新京(지금의 長春)을 탈출했는데(1945. 8. 9), 후지와라(여인)도 그 틈에 끼어, 차에 올라 탔다. 화물차가 압록강을 건너 宣川(평북)까지 오다 그만 멈추고 말았다. 많은 일본 난민들이 1년 가까이 선천에 머물렀는데, 차츰 돈이 떨어지자 남의 돈과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가진 사람들이 돈을 빈강통에 넣어 몰래 나무열에나 돌담 밑에 파묻어 감추던 이야기도

〈訂正〉 3월호의 「〈표1〉 본고에 도움 말을 주신 분들」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이름	8·15(전) 후 / 월 남 후
金應淵	前. 北朝鮮電氣總局 東北配電部業務部長 / PAN Korea(IND. LTD) 代表理事
李泰俊	(朝鮮總督府遞信局) / 商工部電氣局建設課長
李聖鍾	前. 東北配電部工務課長 / 海光電機工業(株) 代表
韓明鍾	前. 東北配電部기사 / 協電舍 代表
金宗秀	前. 淸津(翰城)變電所 기사 / 世紀모터스社 代表
韓承格	(滿洲國興農合作社 理事) / 協和電機工業(株) 專務

※筆者 金曠林(筆名 野麟)

前. 北朝鮮電氣總局 淸津支部業務課長 / 順民出版社 主幹
元山支部經理課長 / 龍閣出版社 代表

나오고, 피난민들끼리 서로 아귀다툼을 하는 장면도 그럴싸하게 묘사되었다. 만주에서 돌아온 장정들이 차례로 발진티푸스로 죽어가기도 했고, 나중에 그녀는 어린 3남매를 업고, 맨발을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험한 산길을 걸어서 끝내 38선을 넘어 갔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걸 그녀가 또 한번 실증해줬다. 굴욕적인 패전의 쓰라림과 그리고 극도의 궁핍과 굶주림에 그토록 한 맺힌 과거를 거울 삼아서 그들은 근검절약해서 오늘날 경제 대국의 기틀을 잡지 않았나 싶었다. UN군이 복진할 때, 선천까지 따라가 봤는데 참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옛 교회도 많았고 양옥도 많았다. 우리들도 몇 차례 고달픈 피난생활을 했지만, 선천에 갔을 때 그녀가 쓴 그 소설이 문득 머리에 떠오르더라고 했다.

❖ 폐허의 ‘電氣王國’, 그 現場을 가다

李泰俊선생의 회고담은 6·25로 계속 이어진다. 직책상(상공부 전기국) 수복지구에 대한 전기사업 실태조사와 복구 가능성을 타진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金洪植씨(조선전업)와 尹在信씨(경진), 세사람이 함께 평양으로 떠나갔다.

우리 국군 제 1사단(사단장 白善樺준장) 제 12연대가 먼저 평양에 돌입했는데 그것이 1950년 10월 19일이었다. 이어 미 제 1기갑사단이 뒤따라 입성했다.

이처럼 국군과 UN군이 평양을 완전히 점령하자 우리 조사단 일행도 곧바로 평양 시내에 들어갈 수 있었다.

공산통치 하에서 5년동안이나 시달려 온 북한 동포들이 UN군이 입성하자 평양 시내는 온통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가 됐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파괴와 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어서 질서가 엉망이었다. 남은 것은 폐허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틈엔가 벌써 정치니 무슨 뻥이니 해서, 그것들을 등에 업은 정상배와 모리배 그룹들이 제각기 전기사업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암투를 벌이고 있던 사실이다.

‘평남도 배전부’ ‘평양시 배전부’ ‘서부 송전부’ 그리고 평양시 사회부의 ‘전기사업소’ 등, 눈에 핏발이 선 사람들이 서로 이권쟁탈전에 네오 내오하며 악다구니가 한창이었다.

상공부 조사단에 협조는 커녕, 마치 악에 받친듯한 브로커들이 모략과 중상으로 이권에만 눈이 뒤집힌 것 같이 보였다. 추잡한 상흔(商魂)에 그쳐 아연실색할 따름이었다고 한다.

마침 전기관리국 직원(피신중이던)이 나타나서 조사단에 적극 협조하면서 열성적으로 도와줬다.

직장에 근무하던 그전 전기관계 요원들의 행방을 알아보니 9월 하순계부터 각 기관, 공장, 국영기업소의 간부와 직원, 또 그 가족 등, 수십 만명을 강제로 이끌고 저 수풍, 강계, 만포진 방면으로 피난을 떠났다고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보로 걸어갔다고 한다. 그때, 각 기관과 공장, 기업소의 중요문건과 도면 같은 것은 트럭에 싣고 도망쳤고 나머지 것들은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말하자면 하나의 초토(焦土) 전술을 쓴 셈이다.

전기부분의 피해를 살펴 보면 그해 7월 23일부터 저 오기나와(沖繩) 기지로부터 미군 폭격기가 편대로 날아와 홍남, 원산, 성진, 청진, 진남포 등지의 공장을 차례로 폭격해서 파괴시켰다. 이같은 폭격이 연일 계속되자, 저들은 발전설비와 또 변전시설의 50% 이상을 해체하거나 분리해서 북쪽의 으스스한 곳으로, 그리고 또 구석진 시골에 소개시켜 놓았다.

9월 중순계부터는 전력 공급이 겨우 1만~2만kW로 뚝 떨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평양발전소가 파괴되어 장진강으로부터 154kV 수전(受電)이 불가능하게 되어 66kV로 장진강에서 154kV 송전선을 이용해서 겨우 6천kW 안팎의 전력을 서북 일대에 제한공급

했다고 한다.

그후 얼마 안가서 부전강 전계통과 장진강 전계통의 수력발전이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는데 다만 허천강(제 1발전소) 4만kVA 1대를 돌려가며 동북과 서북 일부에 간신히 공급했을 뿐이었다. 이때는 이미 전체 산업시설과 공장이 파괴되어 유치한 수공업(手工業)으로 군수품 생산에 안간힘을 쓰고 있던 때다. 저 220kV 수풍 송전선로도 新安州(평남) 부근에 집중적으로 폭격이 계속되는 바람에 복구작업은 업두도 못냈다고 한다. 홍남지구의 5대 공장은 물론 북한의 거의 모든 공장이 파괴되어 전체 산업이 완전히 질식상태에 놓여 있었다.

조사단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전등은 물론, 수도물조차 얻을 수 없었다. 그 당시 평양 주둔 UN군 군정장관은 미 육군의 먼스키 대령이었다. 하루는 UN군 소속의 육군소령이 우리 일행을 찾아와 전력복구와 아울러 상수도 대책도 함께 협조해 주도록 간곡히 요청해 왔다.

그래서 그 소령과 함께 능라도 양수지와 승호리 부근, 사동탄광발전소 등, 여러 곳을 시찰한 뒤, 며칠 후 발전소에서부터 능라도 양수장까지의 배전선로 건설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이어 공사를 마치자 평양 전역에 송전되면서 시민들이 목 말랐던 수도물도 마시게 되었다. 이것이 남한 조사단이 이룩한 첫번째 큰 성과였다.

백아더 사령부에서 파견 나온 또 한사람의 미 육군대령(전기기술 장교)과 함께 전력확보를 위해 진남포, 겁이포, 鍾紡, 평양부근에 있는 전력시설을 두루 돌아다니며 피해현장을 점검하기도 하고 복구 가능성의 타진도 해봤다. 미군은 진남포항에 발전함을 들여 올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조국통일의 꿈은 UN군의 평양 철수(50. 12. 4)와 함께 깨지고 말았다. 이상이 李泰俊선생의 회고이다.

한편 그 당시 국군이 동해안(강원도 양양쪽)에서 38선을 돌파(1950. 10. 1)했다는 소식에, 벌써 당과 인민위원회(강원도, 함경남도) 간부들은 서둘러 가족을 멀찌감치 茂山이나 會寧, 그

리고 동삼성(북간도쪽) 방향으로 피신시키느라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리고 저들 기관은 江界(평북)로 옮겨 갔는데 그토록 기세 등등하던 당과 인민위원회가 볼골사납게 출행랑치기가 바빴다. 국군 제 1군단(군단장 金白---소장) 예하의 제 3사단(사단장 李鍾贊준장)과 수도사단(사단장 宋堯讚준장)이 협동공격으로 원산에 들어간 것은 10월 10일 이었다.

두더지처럼 산속에 숨어있던 중공군이 한국전에 정식 개입, UN군 전면에 나선 것은 10월 25일이었다. 그 무렵 국군 제 6사단(제 7연대)은 승승장구, 10월 26일에 압록강 기슭 楚山(평북)에 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미 제 7사단(제 17연대)이 얼어 붙은 압록강에 이르러, 惠山鎭(함남)에 성조기(星條旗)를 나무꾼 것이 12월 4일이었다.

한편, 동해안을 따라 북진했던 수도사단이 청진(함북)을 점령(11. 25)하자 그 예하 부대를 북쪽 會寧 방면)과 동쪽(雄基 방면)의 두 갈래로 나누어 인민군 패잔병을 다그쳐 추격하고 있었다.

雄基線은 土幕洞을 점령(11. 28)한 후 앞으로 더 진격해 나갔고, 會寧線은 富寧 남쪽 4km 지점까지 진출했는데, 이 때가 모두 11월 30일이었다. 그런데 이날 새벽에, 갑자기 제 1군단 사령부로부터 홍남으로 철수하라는 긴급 철수명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UN군의 홍남철수(12. 24)가 시작되기 무섭게 저들은 일사 총아라하고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사실은 12월 15일부터 기차로, 트럭으로 혹은 도보로 슬금슬금 저들의 남진이 강제와 회령 방면에서부터 시작됐는데, 행정주력부대가 함흥에 당도(12. 24)해 보니 정작 쓸만한 일꾼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 모두들 배를 타거나 육로로 월남해 버렸기 때문이다. 국군과 UN군이 후퇴한 뒤에 북한 전역에 걸쳐서 특히 의사와 철도 요원, 그리고 각종 기술자(기계·전기)들이 태반 부족해서 이만저만 큰 곤란을 겪은게 아니었다고 한다. (다음 호에 계속)